

原州 法泉里 收拾 新石器時代 遺物

尹炯元 (國立中央博物館)

1. 머리말

國立中央博物館 考古部는 한강유역 학술발굴조사사업의 일환으로 1999년부터~2001년까지 3年 동안 江原道 原州市 富論面 法泉里 古墳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原州市 富論面은 南漢江과 蟾江이 合流되는 지점이며, 江原道-京畿道-忠淸北道의 3道가 接境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南漢江 流域은 넓은 충적대지를 이용하여 先史時代부터 농경이 발달하였고, 小河川이 발달하여 水運交通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고 있었다.

法泉里 一帶는 三國時代의 古墳이 밀집분포하고 있고, 高麗時代에는 法泉寺址, 居頓寺址 등의 大寺刹이 蕃盛하였으며, 高麗(興元倉)·朝代(興原倉) 시대에는 큰 曹倉이 物류집산지가 되어, 原州와 開城·漢陽간의 창구역할을 하는 등 交易과 移動의 中心地로 기능하던 곳이다(地圖).

法泉里 古墳群은 1973년에 羊形靑磁를 비롯해 靑銅鏃斗·鐙子·轡 등의 重要유물이 매장문화재로 신고되어 학계에 알려졌으며¹⁾, 1~3차 發掘調査를 통해 30基의 遺構와 746點의 遺物이 출토되었다. 다음에 소개할 유물은 1999年 地表調査와 1次 發掘調査를 통해 수습된 土器 7片과 石器 2點이다.²⁾ 비록, 유구내부에서 출토되지는 않았지만, 법천리 일대에서 나타나는 新石器時代 遺物은 동일지역에 新石器文化의 存在를 반증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1) 金元龍, 1973, "原城郡 法泉里 石槨墓와 出土遺物", 『考古美術』120.

2) 國立中央博物館, 2000, 『法泉里』, 古蹟調査報告 第三十一冊, pp.136~141